

## 제2절 전통음악\*

### 1. 전남의 전통음악

순천의 전통음악을 살펴보기 이전에 전남지역의 음악을 먼저 살펴보겠다. 순천의 지리적 여건이 순천만의 독특한 음악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의 음악문화는 전남 음악문화의 일부분으로 설명된다.

전남의 음악과 관련된 역사자료는 대부분 일반 서민들의 구전음악으로 전수되었기 때문인지 문헌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음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악보나 음향자료는 구할 수가 없어서, 문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전남지역은 넓은 의미로 호남문화권 또는 백제문화권이므로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의 동일문화권의 음악사를 간추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한시대의 전라도지역은 마한에 속해 있었는데, 마한에 관한 기록이 우리나라의 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중국의 『위서』 동이전 마한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마한은 항상 5월의 씨뿌리기가 끝났을 때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노래와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 움직이는 모습은 수십 인이 함께 일어나 앞사람의 뒤를 서로 따르며 땅을 밟으며 구부리고 손과 발의 동작이 서로 맞았고, 악곡의 구절은 마치 탁무와 같았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마한에는 풍농기원제와 같은 큰 행사를 할 때 악(樂)·가(歌)·무(舞)의 종합적인 연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록과 관련하여 함화진과 정익섭은 강강술래의 기원유래를, 그리고 지춘상은 농악의 기원유래를 『위서』 동이전 마한조에 두었다. 『위서』 동이전의 내용만으로는 마한의 음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온 마을사람들이 한데 모여 노래와 춤과 술을 즐기며 밤낮을 계속하여 연희하는 집단적 의식은 마치 지금의 동제나 도당굿의 형태와 비슷하다. 이러한 의식행사에서 연행되었던 악가무가 지금의 전남지역 민요를 대표할 만한 강강술래나, 농악, 무속음악 등으로 발전되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삼국시대 때 백제에서는, 6세기 무렵 일본에 횡적·군후·막목 등의 악기와 무를 전하였다.

『삼국사기』 악지(樂志)에는 『북사(北史)』를 인용한 글에 “백제에 고, 각(角), 적(笛), 공후, 우, 지 등의 음악이 있었다.”고 쓰여 있다. 이와 같이 백제의 음악은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의 음악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중 가장 특색 있게 부각된 것은 6세기 초에 미마지가 일본에 전해준 기악무(伎樂舞)이다. 이 기악무는 현재 우리나라의 양주산대도감(楊州山臺都監) 놀이나 봉산(鳳山)탈춤 등의 가면극과 유사하다.

노래로는 선운산(禪雲山), 무등산(無等山), 방등산(方等山), 정읍(井邑), 지리산(智異山) 등이

\* 제2절은 김우진(金宇振) 집필임.

악보 없이 백제속악이란 이름으로 『고려사』 악지에 전한다. 앞의 내용으로 보아 백제의 민간에서는 많은 노래들이 불렸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와 같은 음악의 터전 위에 남도 특유의 음악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한편 앞의 노래 중 정음은 고려시대에는 성악곡인 대표적 향가로 불렸으며, 조선 말기 이후로는 가사는 없어지고 기악합주곡으로 편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주되는 정악(正樂)합주곡의 대표적인 곡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 중기에 이르는 10여 세기 동안의 음악문화는 궁궐이나 선비계층, 또는 경기지역의 음악문화 위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전라도지역의 음악에 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전통음악의 장르들을 미루어 추측하자면 무속음악과 민요·농요 등의 성악곡이 전라도 특유의 음조직을 형성하며 발전하였고, 그외 시조·가사·풍류 등도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라도의 각 사찰에서도 범패가 성행하였음은 각 사찰의 역사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기에 발달된 장르 가운데 민중의 정서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민요이다. 이러한 민요 중에 농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모를 찢을 때와 심을 때의 노래가 다르고 논을 맬 때에도 각기 몸 동작에 맞는 노래를 부르고, 추수한 후 부르는 길꼬냉이(진도의 민요)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또한 부녀자들이 밭을 맬 때와 벼들을 찢을 때 부르는 노래 등 각기 일과 동작에 맞는 노래가 전해진다. 이러한 농요 외에도 강강술래나 진도아리랑과 같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놀면서 부를 수 있는 유희요가 있으며 고기를 잡을 때 부르는 어요, 상여 나갈 때 부르는 만가(晩歌),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와 동요, 혹독한 시집살이의 설움을 한탄하는 시집살이요(부녀요) 등 다양한 민요들이 있다.

남도민요들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끝내는 단순한 무절형식(無節形式)의 노래가 아니고, 한 사람이 앞부분을 부르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뒷부분(후렴구)을 제창으로 불러주고, 또다시 다른 한 사람이 앞부분을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제창하는 유절형식(有節形式)의 메기고 받는 소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기고 받는 형식은 남도사람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에서 출발한다. 즉, 두레나 품앗이 같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단합된 힘과 평등이 내면적인 정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전라도의 음악은 개성적인 음악어법으로 크게 발달하여 전라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발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산조(散調)와 판소리이다.

판소리는 그 근원을 꼭 전라남도에 국한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서 명창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특히 산조는 그 시조가 전남 영암 사람인 김창조(1865~1929)로서 시나위나 봉장취와 같은 무속 기악곡을 바탕으로 판소리의 가락을 넣어서 가야금산조의 틀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기타 다른 악기 산조의 유래도 전라남도의 명인으로부터 시작된다. 호남지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 성악곡으로 발전한 판소리의 기원은 우리나라 원시종교인 무속의 무굿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했다고 하는 설이 지배적이고, 다른 민요 등의 노래를 통하여 음악적으로 더 발전되었다고 한다. 판소리가 발생한 시기인 200여 년 전 조선 말기의 사회는 수많은 난으로 인하여 나라는 파탄 직전에 놓였고, 일반 백성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때에 발생한 판소리는 그 사설 내용이 몰락한 양반을 조롱하고 꾸짖는 백성들의 노래였다.

춘향가는 몰락한 양반의 대역인 변사또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급기야 벌을 주고 꾸짖으며, 춘향이의 정절을 강조하였다. 또한 심청가를 통하여 효행을 노래하고, 흥보가에서는 권선징악과 형제간의 우애를 노래하였다. 판소리야말로 암울했던 조선 말기에 원한 섞인 백성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소리는 남도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한'의 예술'이라

는 독특한 이면을 더욱 발전시켰고 다른 지역에는 없었던 '계면조'라는 선법을 발전시켰다. 일제 강점기 이 지역 전통음악의 명맥은 광주권번(圈番)을 비롯한 순천권번, 목포권번 등과 각 지역의 신청(神廳) 등지에서 간간히 명맥을 유지해오면서 해방 이후에는 광주성악연구회가 결성되었다. 협률사와 같은 성격의 단체들이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일제 말엽과 해방 직후에 지역 곳곳을 찾아 다니며 창극과 삼현육각 등을 공연하면서 민중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전통음악의 보급에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통음악의 근간이 되는 농요나 어요 등의 일노래는 생활현장에서 사라져갔다. 반면에 광주를 비롯한 목포·순천·여수 등 각 지역마다 국악원이 만들어져 판소리나 산조 등의 보급과 교육이 활발해졌다. 전남대학교와 광주예술고등학교에 국악과가 설치된 후 순천지역의 인재들이 진학하여 전통음악을 학습하고 있으며 장차 지역의 전통음악을 전승, 발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